

사모펀드 현황과 부산금융중심지 활용

(2025. 1. 15. ESG증권파생금융팀)

□ 사모펀드시장

- 국내에서 사모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투자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49인 이하)로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것(자본시장법 §9(19))
 -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는 '사모운용사'로 지칭
-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은 크게 프라이빗 에쿼티 · 사모채권 · 실물자산으로 분류
 - 프라이빗에쿼티(Private Equity, 이하 PE) : 특정 기업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지분형 증권에 투자하거나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지분증권에 대한투자, CB, BW 등과 같은 메자닌 증권에 대한 투자
 - 사모채권(Private Debt) : 대출형태의 자본 공급으로 경영권 없음
 - 실물자산(Real Asset) : 부동산, 인프라, 천연자원 등에 대한 투자
- * 자산운용시장은 자금조성 방식에 따라 공모와 사모로 구분

〈자산운용시장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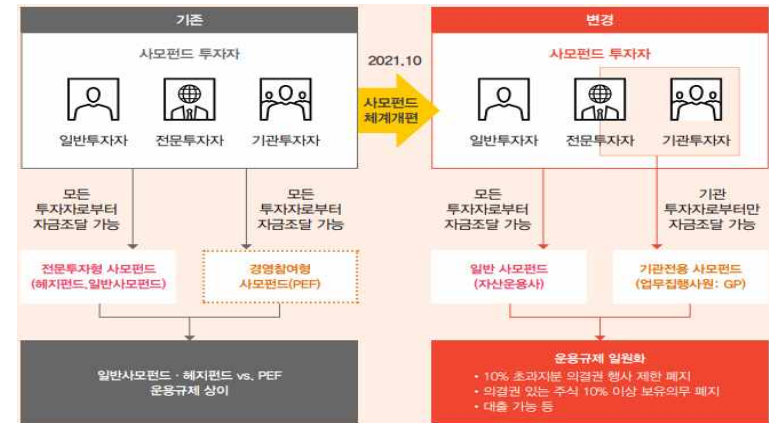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 국내 사모펀드 분류

- (국내 사모펀드 체계 개편)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후 투자자보호와 모험자금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21. 10월)
 - '21년까지는 운용 목적에 따라 기업경영에 개입없이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과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되팔아 이익을 얻는 '경영참여형'으로 구분
 - 기존체계 통합 후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며 사모펀드에 걸맞은 운용 자율화와 투자자보호 지향
 - 기관전용과 일반 사모펀드 간에는 투자대상 · 운용 목적 구분이 사라지고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분류만 있으며 기관전용 대비 일반 사모펀드는 엄격한 규제를 받음

〈사모펀드 구분〉



- (일반 사모펀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최소투자금액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법 §9(19)2)
 -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설정 · 운용
- (기관전용 사모펀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유사
 -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 및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하는 Buy-out 성격의 펀드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 업무집행사원(GP) 라이선스 보유자가 설정 · 운용

| | 2021년 10월 이전 | | 2021년 10월 이후 | | |
|----------|---|--------------------------------------|---|---|--------------------------------------|
| | 전문투자형 | 경영참여형 | 일반 | 기관전용 | |
| 운용주체 | 전문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 업무집행사원 (비금융투자업자) | 일반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 업무집행사원 (비금융투자업자) | |
| 투자자 범위 | 전문투자자 +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 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 | | 기존 유지 * 전문투자자 + 최소투자 금액(3억원, 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 이상 일반투자자 |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 | |
| 투자자 보호장치 |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표준화된 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없음,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없음 등 | | ① 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 보호 강화 (판매사수익사 운용감시 등) ② 전문투자자 대상 : 현행 수준을 유지 | 기존 수준을 유지 | |
| 운용목적 | 경영참여 목적 외 | 경영참여 목적 | 모두 가능 (경영참여 목적 / 경영참여 목적 외) | | |
| 운용 방법 | 차입 | 400% 이내 * 단, SPC는 300% 이내 | 10% 이내 | 400% 이내 | |
| | 대출 |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 불가 |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 |
| | 의결권 제한 | 10%초과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제한 | 해당 없음 | 의결권 제한 폐지 | |
| | 지분 투자 | 해당 없음 | 펀드자산의 50% 이상 지분투자,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 6개월 이상 보유 | 지분투자 의무 폐지 | |
| 보고 의무 | 업무 보고서 | 금융투자업자로서 월별 제출 | 해당 없음 * GP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보고 의무도 없음 | 월별 제출 | 해당 없음 단, 변경보고 신설 * GP 등록사항 변경시 |
| | 펀드 보고서 | 반기별 제출 * '21.3월부터 반기별 | 반기별 제출 * 자산총액 100억 미만 펀드는 연도별 제출 | 반기별 제출 (제출주기 단축 및 보고항목 추가) | 반기별 제출 (현행과 동일) |
| 감독·검사 | 전문사모운용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감독·검사 | 업무집행사원 검사권한 불명확 * PEF 검사권한만 명시 | 일반사모운용사도 금융투자업자로서 감독·검사 | 업무집행사원 검사권한 명확화 * GP·PEF 검사권 명시 | |

출처 : 금융위원회

□ 글로벌 사모시장 현황

- 글로벌 사모시장 운용자산(AUM, Assets under management)
 - 글로벌 사모시장 운용자산 규모는 13.1조 달러('23.6월 기준). '17년 이후 연평균 18% 성장
 - 투자대상별로는 PE가 8.1조 달러로 전체 사모시장의 63%를 차지. 이외 실물자산(부동산/인프라/원자재)이 23%, 사모사채가 13% 비중
 - 지역별 운용자산은 북미 7.1조 달러(54%), 아시아 2.7조 달러(21%), 유럽 2.6조 달러(20%)
- 글로벌 사모시장 자금모집('23년)
 - '23년은 금리인상, 자산시장 냉각,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저하되며 전년대비 22% 감소한 1.0조 달러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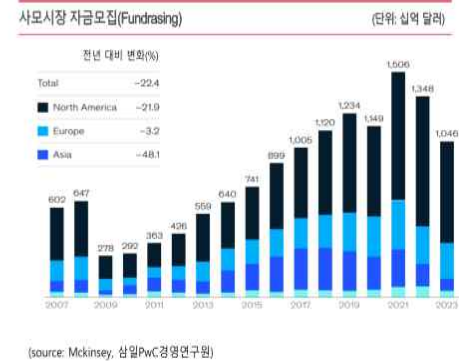
〈글로벌시장 동향〉

사모시장 운용자산(AUM) (단위: 십억 달러)

| | Buyout | Venture Capital | Growth | 기타 | Private debt | 부동산 | 인프라&원자재 | 합계 |
|-----|--------|-----------------|--------|-----|--------------|-------|---------|--------|
| 북미 | 2,393 | 1,079 | 625 | 242 | 1,047 | 989 | 725 | 7,100 |
| 유럽 | 1,003 | 213 | 135 | 6 | 442 | 379 | 486 | 2,664 |
| 아시아 | 379 | 1,294 | 515 | 42 | 117 | 226 | 151 | 2,724 |
| 기타 | 98 | 120 | 97 | 5 | 87 | 80 | 147 | 634 |
| 합계 | 3,873 | 2,706 | 1,372 | 295 | 1,693 | 1,674 | 1,509 | 13,122 |

Private Equity: 8.2조 달러(63%) Real Assets: 3.1조 달러

(source: Mckinsey,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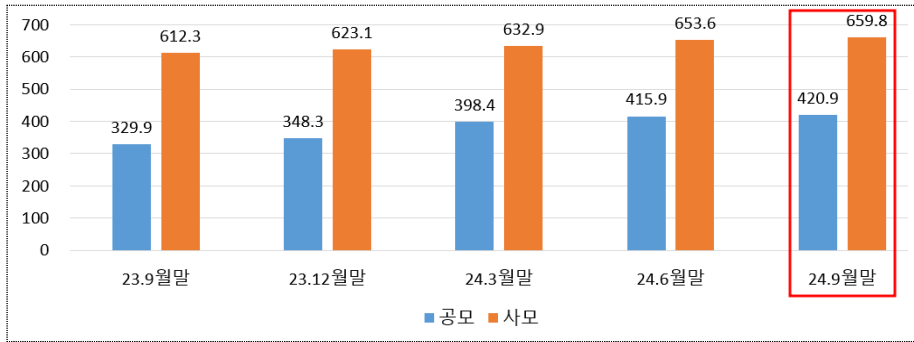


□ 국내 사모시장 현황

- (시장현황) 국내 펀드시장 규모는 순자산 기준 1,080.7조원('24.9월 기준). 공모 420.9조원, 사모 659.8조원

(단위 : 조원, %)

| 구분 | '23.9월말 | '23.12월말 | '24.3월말 | '24.6월말 | '24.9월말 |
|-----|---------|----------|----------|---------|---------|
| 공 모 | 329.9 | 348.3 | 398.4 | 415.9 | 420.9 |
| | | (+5.6%) | (+14.4%) | (+4.4%) | (+1.2%) |
| 사 모 | 612.3 | 623.1 | 632.9 | 653.6 | 659.8 |
| | | (+1.8%) | (+1.6%) | (+3.3%) | (+0.9%) |
| 전 체 | 942.2 | 971.4 | 1031.4 | 1069.6 | 1080.7 |
| | | (+3.1%) | (+6.2%) | (+3.7%) |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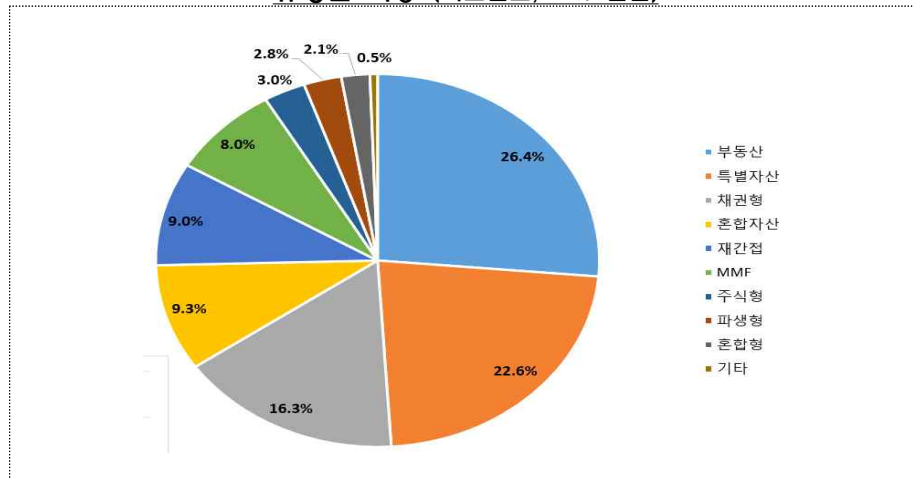
출처 : 금융투자협회

○ (일반 사모펀드 규모)

(순자산총액 기준, 단위 : 조원, %)

| 구분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재간접 | MMF | 파생형 | 부동산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기타 | 합계 |
|-------|---------|---------|---------|---------|---------|---------|---------|---------|---------|----------|---------|
| '24.9 | 20.1 | 107.8 | 13.7 | 59.1 | 53.0 | 18.2 | 174.0 | 149.4 | 61.0 | 3.6 | 659.8 |
| | (△8.2%) | (+8.8%) | (+4.6%) | (△2.3%) | (△6.3%) | (△0.9%) | (+1.4%) | (+0.8%) | (+1.4%) | (△17.2%) | (+0.9%) |
| '24.6 | 21.9 | 99.0 | 13.1 | 60.5 | 56.6 | 18.3 | 171.6 | 148.2 | 60.2 | 4.4 | 65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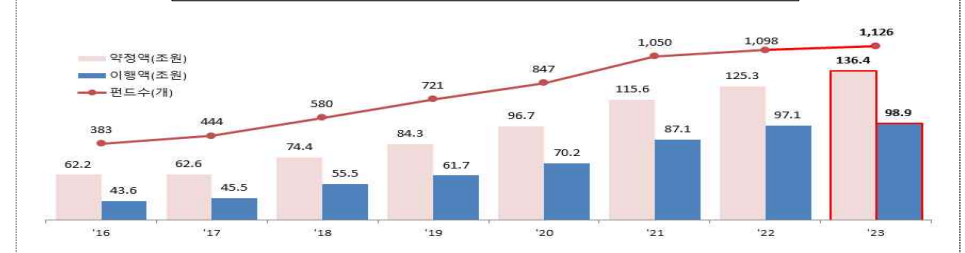
유형별 비중 (사모펀드, '24.9월말)



출처 : 금융투자협회

-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모) '23년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총 1,126개로 전년말 (1,098개) 대비 28개(2.6%) 증가
- 약정액은 136.4조원, 이행액은 98.9조원(이행비율은 72.5%)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11.1조원 (8.9%) 증가, 1.8조원(1.9%) 증가

연도별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 약정액, 이행액 추이



출처 : 금융감독원

<참고> 업무집행사원(운용사) 현황

- (GP 현황) '23년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업무집행사원(이하 "GP")은 422사로 전년(415사) 대비 7사 증가(1.7% ↑)

- 전업 GP의 수는 316사(전체의 74.8%)로 전체 대비 높은 비중을 유지*

* ('21) 74.6% → ('22) 75.2% → ('23) 74.8%

GP 구분(전업/금융회사/창투계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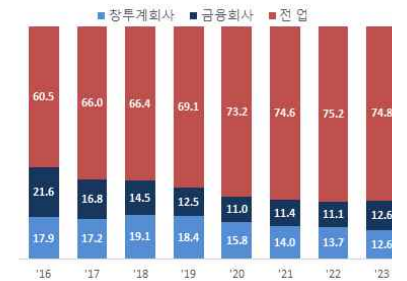
(단위 : 사, %)

| 구분 | '22년 (A) | '23년 (B) | 증감 (B-A) | 증감률 |
|--------|----------|----------|----------|------|
| | | | | |
| 전업 | 312 | 316 | 4 | 1.3 |
| 금융회사 | 46 | 52 | 6 | 13.0 |
| 창투계회사* | 57 | 54 | △3 | △5.3 |
| 합계 | 415 | 422 | 7 | 1.7 |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등

연도별 GP 구성비율

(단위 : %)



□ 외국계 사모운용사 국내 진입 개요

- (국내진입 현황) '22년 기준 외국계 사모펀드가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은 53곳으로 국내 사모펀드의 20곳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이들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는 약 38조원으로 국내 사모펀드의 4조 3,554억원에 비해 약 9배
- 블랙록은 삼성전자, 삼성SDI, 호텔신라 등 8개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가치는 총 25조원에 이룸. 텐센트는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 등 3개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가치는 약 4조원
- (비즈니스 전략) 외국계 사모펀드는 기업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일정 기간 후 매각해 수익을 실현 전략을 주로 구사
- 최근에는 글로벌 운용사들이 국내에 법인 설립해 사모대출시장에 진출. 미국계 아폴로는 뉴욕의 대체투자 운용사인 EMP벨스타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 사모대출시장 진출하는 등 사모대출, 인프라까지 투자 대상 다양화
- PE는 지역적 특수성이 강하며 현지 시장이나 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선결이 필요. 이에 따라 최근 한국진입이 늘어나는 추세
- 글로벌 1위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2014년 한국 철수 후 2022년 한국 법인 설립

□ 외국계 사모운용사 국내 진입 형태

- 코로나 19 이후 외국계 운용사 국내 진입 현황

| 국적 | 업체명 |
|-----|---|
| 미국계 | 블랙스톤, 아폴로, 뉴버거버먼자산운용 , 프리티움 파트너스, 오차드, 락포인트 |
| 영국계 | 맨, 콜러캐피탈 |
| 기타 | 브룩필드자산운용 (캐나다), IMC증권 (네덜란드), 노르딕 캐피탈(노르웨이), 케펠인프라스트럭처트러스트(싱가포르), EQT파트너스(스웨덴), 노스리프(캐나다) |

*출처 : 韓서 기회찾는 외국계 PE.. 토종펀드는 유동성 바닥(아시아 경제, 22.11.16)와 기사 검색

○ 진입 유형

- 금융감독원에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후 국내에서 펀드 모집 및 판매업 영위 (교보약사자산운용 등 29개*) [참고1]
- * 금융감독원,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업 인가등록 종합표, '24.12.31. 기준.
- **외국계 여부는 금융감독원 발표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점포 현황」 기준
- 금융감독원에 외국투자기구(역외펀드) 등록 후 국내투자자 대상 판매(JP모건 등)
- 국내 금융사와 합작으로 운영(워버그핀커스, NH아문디)
- 국내에 한국법인·지점·사무소를 설립*하고 정보수집 가능 수행(블랙스톤어드바이저스코리아(컨설팅업))
- * 非금융투자업자는 금감원 등록 없이 시장조사활동 수행. 위 표에서 음영 외 기업들은 금감원 집합투자업 등록 미비,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점포현황에 미포함
- * 조세회피를 위해 글로벌 PE 중 국내 사무소에 대해 '컨설팅 브랜치' 역할로 한정하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
- 또한 외국계 운용사가 국내 현지법인을 두는 경우와 해외본부를 둔곳의 영업 역차별이 존재하며 이는 국내 현지법인의 이탈 요인으로 작용

□ 최근 글로벌 사모운용사 국내 진출 원인

- (국내기업 사모대출 수요) 금융자본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한국 기업들이 사모대출 시장으로 대출 수요 방향 변화
- (부동산 PF 시장) 국내 금융기관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PF시장에서 보수적 기조인 반면 국내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PF 사업 수익률, 환율 등을 고려해 외국계 PE들이 투자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
- (중국 투자 대안) 글로벌 펀드 내 아시아 할당 비중이 존재 하지만 중국 투자와 회수가 어려워지며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주로 배터리,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B2B 위주 관심
- 한국을 아시아에서 대형 인수합병(M&A)가 가능한 몇 안되는 곳으로 인식하는 반면 국내 운용사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내 기관 투자자 전략변화)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교직원공제회, 새마을금고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 등장했으며. 이들 기관의 대체투자를 포함한 사모자산 투자 증가세
- (기타) 글로벌 오피스 시장의 새로운 대안 또는 리스크 분산의 용도로 국내 임대주택코리빙 시장에 외국계 투자 증대

□ 부산 금융중심지 활용

- (기회발전특구 활용) 부산에 사무소를 개설하게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시아 시장의 딜이 부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 마련 - 금융허브 도약의 기회로 활용
 - 현재 국내 진출하는 사모펀드 중 많은 업체들이 해외 혹은 조세피난처 등에 등록해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도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각국의 조세협정에 따른 세부담 경감 목적)
 - 외국계 운용사 국내 법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투자매매중개 라이선스가 필요하지만, 국내 법인이 없는 외국계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라이선스 없이 펀드 상품 영업을 하는 사각이 발생. 이런 역차별 요인을 제거 필요. (국내 외국계 운용사가 라이선스 없이 본사 상품을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허용 등)
 - 성장자본 공급의 취지에 부합되게 투자기간 장기화 유인책 필요. 일정 기간이상 존속한 PEF에 대해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인센티브
 - Tech 섹터는 타 섹터대비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의 안정성이 떨어져 투자에 대한 유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규제완화 및 세금혜택 부여
 - (부산지역 펀드 활용) 부산시에서 조성한 기존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부산 소재 운용사에 인센티브 제공(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등)
 - 외국계 사모펀드와 산업은행 Co-GP 참여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외국계 운용사의 부산 유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
 - (대체투자 대상 확보) 물류, 시니어산업 등 부산에서 성장가능한 산업 부각하고 부산항 재개발, 가덕신공항 건설 등 운용사들이 관심이질만한 투자대상을 물색하고 적극적으로 소개
 - 'CBRE코리아, 올해 부산 A급 물류시장 전년 대비 75% 성장'(머니투데이, '24.12.11.)
- 유치대상 선정을 위해 중국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아시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하는 운용사와 금융감독원 외국펀드 등록부에 등록된 펀드 운용사중 국내 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탐색 필요

참고1 **외국계 자산운용사 국내 진출 현황('23.9월 기준)**

○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 연번 | 회사명 | 점포현황 | 집합투자업 인가현황 | 펀드 등록 | 인가/등록일 |
|----|----------------------|------|---------------|-------|--------|
| 1 | 교보약사자산운용 | 현지법인 | 종합/일반사모 | ○ | |
| 2 | 나틱시스자산운용 | 현지법인 | 일반사모 | | |
| 3 | 누버거버먼자산운용 | 현지법인 | 일반사모 | | |
| 4 |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 현지법인 | 종합/일반사모 | ○ | |
| 5 | 라살자산운용 | 현지법인 | 일반사모 | | |
| 6 | 맥쿼리자산운용 | 현지법인 | 부동산.특별자산/일반사모 | ○ | |
| 7 | 모건스탠리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컴퍼니 | 사무소 | - | | |
| 8 | 베어링자산운용 | 현지법인 | 종합/일반사모 | ○ | |
| 9 | 브룩필드자산운용코리아 | 현지법인 | 일반사모 | | |
| 10 | 브이아이자산운용 | 현지법인 | 종합/일반사모 | ○ | |
| 11 | 블랙록자산운용 | 현지법인 | 일반사모 | | |
| 12 | 셀리니언자산운용 | 현지법인 | 일반사모 | | |
| 13 | 슈로더투자신탁운용 | 현지법인 | 종합/일반사모 | ○ | |
| 14 | 스래드니들포트폴리오서비스즈홍콩리미티드 | 사무소 | - | | |
| 15 | 스팍스자산운용 | 현지법인 | 증권/일반사모 | ○ | |
| 16 |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 | 현지법인 | 부동산.특별자산/일반사모 | | |
| 17 | 아이디인베스트파트너스 | 사무소 | - | | |
| 18 |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 | 현지법인 | 증권/일반사모 | ○ | |
| 19 |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 | 현지법인 | 일반사모 | | |
| 20 | 에이피자산운용 | 현지법인 | 일반사모 | | |
| 21 | 엔지이에이엠에스.에이. | 사무소 | - | | |
| 22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현지법인 | 종합/일반사모 | ○ | |
| 23 | 인마크자산운용 | 현지법인 | 일반사모 | | |
| 24 | 캐피탈랜드투자운용 | 현지법인 | 부동산/일반사모 | | |
| 25 | 케펠자산운용 | 현지법인 | 일반사모 | | |
| 26 | 템플턴하나자산운용 | 현지법인 | 특별자산/일반사모 | ○ | |
| 27 | 토포앤코코리아자산운용 | 현지법인 | 일반사모 | | |
| 28 | 피델리티자산운용 | 현지법인 | 종합/일반사모 | ○ | |
| 29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 현지법인 | 종합/일반사모 | ○ | |

* 금융감독원 외국계금융회사 국내점포현황,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업 인가등록 종합표, 집합투자기구 등록부 등을 종합하여 작성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 연번 | 회사명 | 약정액(억원) | 등록연도 | 국적 |
|----|------------------|---------|------|-----|
| 1 | 맥쿼리자산운용 | 29,398 | 2002 | 호주 |
| 2 | 유씨케이파트너스 | 25,343 | 2012 | 일본 |
| 3 | 소프트뱅크벤처스 | 3,895 | 2000 | 일본 |
| 4 | 유안타인베스트먼트 | 3,860 | 1989 | 대만 |
| 5 | 이엠피벨스타 | 3,814 | 2011 | 미국 |
| 6 | 코스톤아시아 | 3,442 | 2009 | 미국 |
| 7 | 엑셀시아캐피탈코리아 | 2,716 | 2013 | 중국 |
| 8 | 씨엘에스에이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 2,702 | 1985 | 홍콩 |
| 9 | 그린하버자산운용 | 2,306 | 2012 | 캐나다 |
| 10 | 유안타증권 | 2,249 | | 대만 |
| 11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 1,108 | 1986 | 일본 |
| 12 | 아이디지털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 730 | 2015 | 중국 |
| 13 | 위더스파트너스코리아지피 | 600 | 2020 | 미국 |
| 14 | 캘비던글로벌 | 307 | | 영국 |
| 15 | 인마크에쿼티파트너스 | 203 | 2021 | 호주 |
| 16 | 엘리베이션에쿼티파트너스코리아 | 200 | 2019 | 미국 |
| 17 | 하이랜드캐피탈매니지먼트코리아 | 184 | 2012 | 미국 |
| 18 |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코리아 | 169 | 2018 | 일본 |

* '23년 약정액 기준 정렬(금감원 데이터 기준)

참고2 유치 대상

차이나 리스크 높아지자... '기술투자 명가' 실버레이크PE도 한국 진출 기웃

이상은 기자 ✉ 양선우 기자 ✉ | Edited by 이도현 부장 ✉

입력 2024.05.21 07:00

가 가

인재 물색 등 한국 PE투자 확대 고려
 최근 205억달러 역대 최대 7호 펀드 결성
 높아진 '차이나 리스크'에 한국 관심 ↑
 배터리·반도체 기술 보유 기업多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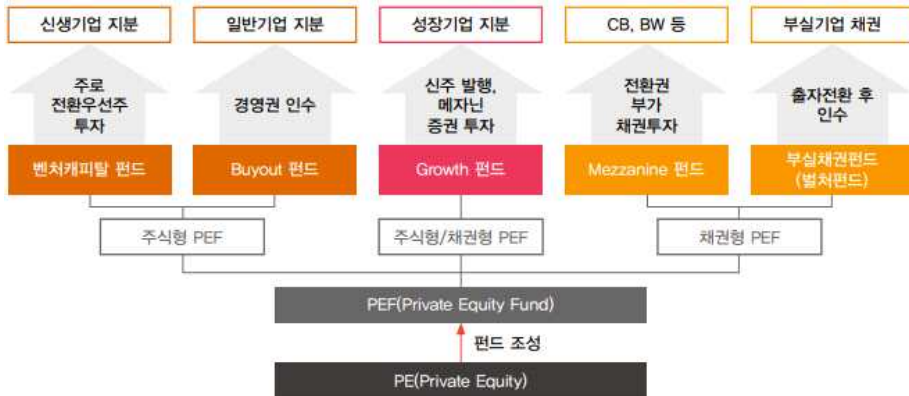


참고3 PE 투자유형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형태〉



〈PE의 투자형태〉



| | |
|-------------|---|
| 벤처캐피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이나 신사업모델을 가진 벤처기업에 투자 • VC의 지분참여는 형식상으로 소수지분 투자이지만, 벤처기업의 전략 수립, 핵심인력 채용, 자금 조달 등 벤처기업 운영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 행사 • 통상 일회성 자금 공급이 아닌, 벤처기술 상용화 단계에 맞춰 수차례로 집행 |
| Buyou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취득하여, 기업경영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 기업가치 제고 후 상장(IPO),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타 펀드로의 매각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 • 인수자금의 상당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 및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차입하여, 이를 차입매수(Leveraged Buyout:LBO)라고 부름 |
| Growt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기업이 아닌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검증된 기업의 한 단계 도약(해외진출, 신제품 투자, 기업 인수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 • 주로 신주 발행이나, 메자닌 증권 등에 대한 투자 형태로 이루어짐 • VC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의미 있는 소수지분으로 참여하지만,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여 중요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역할 수행 |
| Mezzan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자닌 캐피탈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단계 성격을 지님 • 주로 고수익 채권 이나 후순위 채권 등의 형태로 투자, 후순위채는 상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
| 부실채권 (벌처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 법정관리 등 부실화된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 •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 구조조정 과정을 장악하여 기업 Turn-around에 주력 • 부실채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벌처펀드라고 하여 경기침체나 특정 국가의 경제 및 금융위기 등의 시기에 활약하는 경향이 있음 |